



2012 엑스포 여수로

여수시 어떻게 준비해왔나

시민 1천여명 인천공항 실사단 환영

송 외교 "여수 인지도 높아져 유치 유리"

2004년 12월 시민의 힘으로 '국가계획' 끌어내

2002 좌절 직후 2012 박람회 유치 결의 2005년 정부-전남도-여수시 공조체제

2002년 12월 3일 모나코에서 열린 세계박람회 사무국(BIE) 132차 총회에서 여수는 크나큰 좌절을 맛보아야 했다. 2010년 세계박람회 유치를 놓고 중국, 러시아, 멕시코, 폴란드와 겨뤘던 건곤일척의 승부에서, 4번에 걸친 투표 끝에 중국 상해에 34대 54로 패배한 것이다.

BIE 회원국 88개국에 참여한 투표에서 '순습게 승리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에 부풀어있던 여수 시민들은 비탄에 젖어들었다. 여수는 그러나 참담한 슬픔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의 싹을 찾아냈다.

'박람회 유치 무산에 따른 후속대책을 찾아라'는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의지와, 여수 발전을 위해 새로운 활로를 뚫으려는 지역민들의 결의에 힘입어 여수시민들은 '2012년 세계박람회 유치'를 새로운 목표로 설정했다.

여수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곧바로 '2012세계박람회 여수유치'를 정부에 건의했으며, 이듬해인 2003년 1월 15일 경제장관회의에서 '2012년 세계박람회 유치 재추진'방침이 결정됐다.

여수시민의 끈질긴 노력과 경남·제주를 비롯

전국 자치단체의 지원 약속을 받으며 대세로 굳어져 가던 '2012여수세계박람회 유치'는 그러나 2003년 중반에 인접한 광주시가 '광산업 박람회 유치'를 추진하고 나서면서 벽에 가로막히는 듯했다.

광주와 여수 간 심각한 갈등국면으로까지 치달던 '박람회 유치전'은 결국 2004년 1월 15일 광주시와 전남도가 '2012년 세계박람회 여수유치'에 합의함으로써 막을 내렸고, 2004년 12월 '2012세계박람회 여수유치'가 국가계획으로 공식 확정됐다.

여수시는 막바로 '2012세계박람회 지방유치위원회'와 '세계박람회 지원단'을 구성, 박람회 유치를 위한 실무작업에 착수했다. 전남도 역시 지난 2005년 1월 엑스포지원관실을 발족, '정부와 여수, 전남도' 간의 삼각 공조체제를 구축했다.

여수시는 이후 여수박람회 유치에 필요한 사회기반시설(SOC)을 확충하기 위해 국고지원을 요청하고, 새로운 사업 발굴에 나서는 한편 온 시민이 한데 뭉쳐 유치를 지원하겠다는 등 박람회 유치의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 모



9일 오후 여수시민 1천여명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세계박람회사무국(BIE) 현지 실사단을 열렬히 환영하자 한 실사단원이 차창 밖으로 손을 흔들며 답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오현섭 여수시장도 취임 이후 세계 곳곳을 찾아다니며 BIE 회원국을 설득하고 지지를 호소하는가 하면,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등 해외에 거주하는 영향력 있는 한국인들을 찾아 협조를 요청하는 등 '2012세계박람회 유치'라는 꿈을

현실화하기 위해 뛰어나고 있다.

오 시장은 "시민의 힘으로 '2012여수세계박람회 유치'가 국가계획으로 확정된 만큼 이번 BIE 현지 실사에서도 여수시민의 유치를 지지해 충분히 보여줄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9일 오후 2012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후보지를 점검하기 위한 세계박람회 사무국(BIE) 실사단이 입국한 인천공항에는 1천여명의 환영단이 방문객들을 뜨겁게 맞이했다.

실사단이 도착하자 환영단은 2012 여수박람회 엠블럼이 그려진 깃발과 환영문구를 담은 피켓, 머플러 등을 흔들며 환호해 분위기를 뜨겁게 달아올렸다. 캐나다 출신의 까르맹 실뱅(47·여) BIE 집행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7명의 실사단은 예상보다 훨씬 많은 환영 인파에 놀라는 표정을 지으면서도 미소를 보내는 여유를 잃지않아 입국장 주변은 혼잡함이 가득했다.

실뱅 단장은 공항에서 "첫 현지 실사 대상지인 한국에 도착해 매우 행복하다"면서 "공항에 모인 취재진 수와 환영인파를 보니 여수박람회 대한 국민적 관심이 얼마나 큰지 느껴지며, 여수를 빨리 보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환영인파는 여수와 서울 시민들로, 실사단 개개인의 얼굴과 환영인사가 그려진 플래카드를 흔들며 사물놀이를 곁들여 흥겹게 실사단을 환영했다. 실사단은 간단한 환영식에서 여수시립어린이집 어린이들로부터 꽃을 전달받는 등 따뜻한

한대를 받은 뒤 환영인파의 환호와 함성 속에 공항을 떠났다. 실사단은 이어 하얏트 호텔에 여장을 풀고, 이날 오후 7시부터 시작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만찬에 참석했다.

한편 이날 전남도와 여수시에서는 본격적인 현지실사가 임박하자 분야별 업무를 최종 점검하며 긴장된 하루를 보냈다. 여수 현지의 본격적인 실사는 오는 11일 실사단의 방문에 맞춰 실시되는 탓에 이날 전남도와 여수시는 겉으로는 조용했지만 관계 부서 직원들은 국가적인 대사의 첫 단추를 잘 채워야 한다는 중압감과 함께 신중하게 일손을 놀렸다.

전남도 관계 직원들은 이날 오후 인천공항에 나가 실사단의 입국을 환영하는 한편, 실사단의 동정을 꼼꼼하게 살폈다. 직원들은 공항 환영식에서 실사단이 흠족해하자 실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 같아 밝은 표정을 보였다.

한편 송민순 외교교통부장관은 이날 임시국회 대정부질의 답변을 통해 "여수박람회의 경우 여수의 인지도가 매우 높아졌고 여러가지 정황이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밝혔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한편 송민순 외교교통부장관은 이날 임시국회 대정부질의 답변을 통해 "여수박람회의 경우 여수의 인지도가 매우 높아졌고 여러가지 정황이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밝혔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한편 송민순 외교교통부장관은 이날 임시국회 대정부질의 답변을 통해 "여수박람회의 경우 여수의 인지도가 매우 높아졌고 여러가지 정황이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밝혔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까르맹 실뱅 로세르탈레스 크리스텐센 안카 안젤 프로스타코브 리슬로 글러즈 엘자 가스트로

이들의 눈에 달렸다 여수엑스포 실사단 7명

까르맹 실뱅 캐나다 출신 여성 집행위원장
로세르탈레스 한국 8번 찾은 BIE 사무총장
엘자 가스트로 지적재산권 국제협상 전문가

9일 2012세계박람회 현지 실사차 한국을 방문한 세계박람회사무국(BIE) 실사단은 모두 7명.

이들은 4박 5일간 서울과 여수를 오가며 한국의 박람회 개최 준비 상황을 점검한다. 단장은 여성인 까르맹 실뱅(캐나다) BIE 집행위원장이자, 캐나다 통신부 국제박람회 담당 과장과 문화부 국제 행사 및 진흥담당 과장, 외교교통부 아랍지역 담당 과장, 주모로코 대사관 거쳐 현재는 외교교통부 유럽,아프리카 및 동중지역 담당 통상국장직을 맡고 있다. BIE내에서도 단원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박람회 및 국제행사 전문가다.

특히 2000년부터 집행위원장으로 일하고 있는 까르맹 실뱅 단장은 지난 93년 대전 엑스포 때 캐나다관 설치 책임자로 참여한 바 있다.

단원으로는 역시 여수 시민들에게

익숙한 얼굴인 빈센테 곤잘레스 로세르탈레스 BIE 사무총장(스페인)이 눈에 띈다. 올해 60세로 마드리드대학 교수 출신인 로세르탈레스 사무총장은 94년부터 BIE 사무총장을 맡고 있고 지난 2월 한국을 방문한 것을 비롯 지금까지 8차례나 한국을 방문, 실사단원으로 한국을 찾은 엘자 가스트로 브라질 대표는 여성 외교관 출신으로 주러시아 대사관과 주페루 대사관 1등 서기관, 외교부 지적재산권 과장 등을 지냈고 현재는 주프랑스 브라질 대사관 무역·관광 담당 참사관으로 근무 중이다. 지적재산권 분야 국제협상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덴마크 출신의 스티븐 크리스텐센 대표는 BIE규칙위원장(2003~2005)을 역임했고 2008년 스페인 사라고사 박

람회 덴마크 국가관 정부 대표를 맡고 있다. 1990년대 초반 자국 장관을 수행하면서 방한한 적이 있고 2010년 박람회 실사단 단원으로 참여한 경험 이 있다.

리슬로 글러즈 헝가리 대표는 헝가리 경제교통부 무역개발국장을 역임했고 현재 헝가리 총리실 외교안보실 부실장으로 재직 중인 무역·통상분야 전문가다.

이번 프로스타코브 러시아 대표는 주이탈리아 러시아 관광공사 지사장을 거쳐 현재 주프랑스 러시아 무역 대표를 맡고 있고 50여편 이상의 경제·무역 관련 논문을 발표하는 등 경제 분야 전문가다.

마지막으로 BIE 사무국 전시 모니터링 담당관인 안카 안젤(루마니아) 단원은 일본 나고야 경성대에서 행정 조교로 일할 당시 2005년 아이치 박람회 준비위원으로 근무했던 경력 을 계기로 BIE와 인연을 맺게 됐다.

이번 실사단은 한국 실사를 위해 구성됐으며 향후 모로코와 폴란드 실사는 집행위원장과 사무총장 등 2명을 빼고 나머지 5명은 대륙별 인재를 통해 다른 대표들로 실사단이 꾸려진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전라선 쏠구간 2011년까지 복선화

정부, 여수 엑스포 유치 위해 조기 착공 결정

호남 지역의 숙원 사업인 전라선 복선화가 오는 2011년 상반기에 이뤄질 전망이다.

9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2012년 여수 엑스포 유치와 관련해 전라선 전 구간을 복선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대표적인 단선 구간인 익산~신리(35.2km)를 오는 7월 착공해 2011년 상반기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특히 총 사업비 4천351억원이 투입되는 익산~신리 복선화는 한국철도시설공단과 남광토건이 시행을 맡아 국내 최초로 철도 임대형민자사업

(BTL) 방식으로 이뤄지며 올해 우선적으로 60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지난 1월 전북 전주시와 완주군 주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했고 지난달 관계기관과 교통·환경 영향평가서를 협의하고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까지 완료했다.

정부는 익산~신리 복선화와 더불어 여수~순천의 일부 복선화 작업도 병행해 2011년까지 전라선을 모두 복선화한 뒤, 한국형 KTX 열차를 투입해 호남지역의 교통 여건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방침이다. /박지경기자 unipark@kwangju.co.kr

우리의 대표브랜드-삼성

300만 명이 확인한 보장자산

이제, 당신을 직접 찾아갑니다

삼성생명 전국투어를 통해 전 국민의 보장자산을 확인시켜 드립니다.
보장자산도 확인하고, 푸짐한 행운도 챙기세요.

삼성생명 '보장자산 확인하기 전국투어' 이벤트

기간 : 2007. 4.2~5.31(27개월간)
대상 : 삼성생명FC, 전국투어, 홈페이지를 통해 보장자산을 확인하신 모든 고객 중 추첨
발표 : 1차-5월 9일(대상 : 4.2~4.30 참여고객)
2차-6월 11일(대상 : 5.1~5.31 참여고객)

※ 삼성생명 홈페이지(www.samsunglife.com) 또는 담당 FC를 통해 통보
※ 경품에 대한 재세로금 22%는 본인 부담이며, 향후 동사정책에 따른
결합과세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법개정 후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

※상기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입니다. ※퀴즈이벤트 경품은 회사 또는 FC가 직접 전달 드립니다.

삼성생명 보장자산 전국투어 일정 (기간: 2007. 4.9~5.4)

- 보장자산 1호 : 전남(목포)-전북-충남-서울
- 보장자산 2호 : 경남(거제)-충북-서울
- 보장자산 3호 : 경북(대구)-강원-서울
- 보장자산 4호 : 인천-경기-서울

당신의 보장자산을 위한 이름-푸쳐서티플러스

삼성생명 Future 3

삼성생명 SAMSUNG